

毛澤東의 政治經濟學과 4個 現代化 政策의 發展理論 比較

徐 鎭 英*

<目 次>

- | | |
|-----------------------|---------------------------|
| I. 序論：問題의 提起 | (2) 實用主義派의 「社會主義」觀 |
| II. 毛澤東의 政治經濟學 | (3) 4個 現代化의 政治經濟學 |
| (1) 毛澤東思想과 經濟發展 | (4) 두개의 路線, 두개의 發展戰略 |
| (2) 社會主義社會와 프롤레타리아 專政 | IV. 社會科學의 觀點에서 본 中國의 路線鬭爭 |
| (3) 「스탈린의 政治經濟學」 批判 | (1) 「두 개의 마르크시즘」 |
| (4) 毛澤東의 政治經濟學 | (2) 擴散理論과 從屬理論 |
| III. 實用主義路線의 發展戰略 | V. 路線鬭爭과 循環理論 |
| (1) 實用主義路線의 形成 | VI. 結 論 |

I. 序論：問題의 提起*

흔히 中國의 政治變化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1949년 中共政權이 수립된 이후 여러차례의 「歷史的인 變化와 轉換」이 있었기 때문에 中國의 政治過程이 流動的이고 不安定하다는 지적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¹⁾

사실 1958년의 大躍進運動이나 1966년의 文化革命은 말할 것도 없고, 1971년의 林彪의 失脚과 1976년의 文化革命 4人幫의 肅清과 鄧小平體制의 登場 등은 모두 중국정치과정의 예측할 수 없는 流動性을 극적으로

* 政經大 政外科교수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하여 연구된 것을 修正·補完한 것임.

1) James R. Townsend, *Politics in China* (Little, Brown and Co., 1974), pp. 19~22.

表出한 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動態的이고 流動的인 중국정치의 성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중공 당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西歐學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路線鬭爭의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中國의 政治過程에는 이데올로기와 政策定向이 다르고, 權力利益이 相衝되는 두 개의 路線과 勢力이 存在하며, 中國政治의 變化는 이들 두 路線과 勢力의 相互 葛藤과 對立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의 제 1차적인 觀心은 이와같은 두 路線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다. 특히 鄧小平體制가 등장한 이후로 더욱 명료해진 政治와 經濟, 經濟發展과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에 대한 左派와 右派의 路線을 比較·說明하려고 하였다.

左派路線은 大躍進運動이나 文化革命과정에서 나타난 毛澤東의 政治經濟學에서 그 性格이 가장 잘 들어나 있다고 보았으며, 右派路線은 鄧小平體制下에서 추진중인 4個 現代化政策에서 그 특징이 완전히 表出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毛澤東의 政治經濟學과 4個 現代化政策의 發展理論을 比較하려고 하였다.

둘째로, 中國이라는 특수한 政治狀況에서 展開되었던 路線鬭爭을 社會科學的인 脈絡에서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즉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西歐學者들의 論爭이란 차원에서, 그리고 近代化와 經濟發展에 관한 擴散理論과 從屬理論의 論爭이란 차원에서 中國의 路線鬭爭을 再照明함으로써, 中國의 經驗이 시사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路線鬭爭을 中國의인 特殊狀況의 產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近代化過程에 있는 모든 社會가 당면한 問題와 관련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흔히 中國學(sinology)의 弱點으로 지적되는 편협성(parochialism)을 지양하고, 中國學과 一般社會科學의 연계성을 구축해 보려는 노력에서 시도되었다.²⁾

2) 이를테면 Skinner 와 Johnson 같은 學者들도 中國學(Sinology)과 一般社會科學의 연

끝으로 Skinner와 Winckler가 주장한 路線鬭爭의 循環理論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整理하고, 中國의 政治過程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變化의 方向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다시말해서 權力鬭爭이나 政策論爭의 구체적인 內容보다 政治的 變化의 패턴을 究明하여 中國政治過程의 특징을 論理的, 理論的 次元에서 이해함으로써, 中國政治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路線鬭爭에 대한 理論을 再檢討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II. 毛澤東의 政治經濟學

(1) 毛澤東思想과 經濟發展

大躍進運動의 失敗와 彭德懷事件으로 黨內가 동요되고 毛澤東의 權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毛澤東은 스스로 經濟問題에 대한 자신의 無知를 告白한 적이 있었다. 革命이나 游擊戰에는 經驗도 풍부하고 一家見이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經濟建設은 생소한만큼 經濟專門家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黨幹部들에게 注意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사실 毛澤東이나 文化革命左派는 經濟專門家로 자처한 적도 없었지만, 또한 經濟發展의 중요성을 過少評價하지도 않았다. 梁效와 같은 左派理論家가 주장한 것처럼 毛澤東이나 左派도 經濟發展과 4個現代化를 實現하여 富強한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實用主義派와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³⁾

그러나 左派의 견해에 의하면 經濟發展이나 4個現代化는 社會主義社

계성을 강조하였다. G.W. Skinner, "What the Study of China Can Do for Social Science", in *Journal of Asian Studies* 23:4(Aug. 1974); Chalmers Johnson, "The Role of Social Science in China Scholarship", in *World Politics*(Jan. 1965), pp.256~271.

3) 梁效, 人民日報(1976년 2월 25일)

會의 建設이라는 目的에 필요한 중요한 條件이지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目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發展과 4個 現代化를 무조건 강조하는 것은 「唯生產力論」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다시말해서 지나치게 生產力의 發展만을 강조하게 되면 生產關係와 上層構造의 改革을 등한시하게 되고,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이란 目的을 의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毛澤東이나 左派의 이데오로기에 의하면, 「發展」이란 經濟成長의 物質的인 條件形成의 程度에 의하여 측정되기도 하는 보다 포괄적인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이란 目標에 얼마나 接近했느냐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社會에 대한 理想을 희생하면서까지 經濟發展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左派가 생각하는 社會主義社會란 어떤 社會이며, 社會主義社會에서 프로레타리아專政의 주요 任務는 무엇인가?

(2) 社會主義社會와 프로레타리아專政

毛澤東과 左派의 理論家들은 「社會主義社會」를 定義하면서, 私有財產 制度의 철폐, 프로레타리아專政의 수립과 같은 構造的인 要件과 함께, 모든 社會的 不平等의 제거와 社會主義的 道德과 價値의 定立을 중요한 要因으로 강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毛澤東은 支配者와 被支配者, 都市勞動者와 農民, 精神勞動者와 肉體勞動者, 그리고 都市와 農村의 不平等을 억제·감소하여 共產主義社會에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社會主義社會에서 프로레타리아專政의 主要 任務라고 강조하였다.⁴⁾

毛澤東과 文化革命 左派에 의하면 中國社會는 所有權의 觀點에서만 본다면 社會主義社會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意識形態에 있어서나 大衆의 價値觀속에는 封建的이고 資本主義的인 要素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대하

4) Dennis R. Ray, "Mao and the Classless Society", *Survey* 77(Autumn 1970), pp.31~50; Madrice Meisner, "Maoist Utopianism and the Future of Chinese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26:3(Summer 1971), pp.535~555.

게 남아 있고, 또한 社會主義社會에서 실행하고 있는 「8級工資制, 按勞分配的 政策, 그리고 貨幣交換의 經濟」는 사실상 舊社會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資產階級法權」에서 유래하는 不平等을 억제하지 못하면 새로운 特權階級이 등장하고 資本主義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⁵⁾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社會는 「過渡的 社會」이기 때문에 「共產主義의 萌芽」라고 할 수 있는 進步的인 要素와 資本主義에로의 復歸를 가능하게 하는 否定的인 要素가 同時에 共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社會에서도 계속 階級鬭爭을 전개하고 社會主義社會에서 產出되는 不平等을 억제하여 共同富裕의 社會主義理想을 實現하기 위한 政治的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專政의 最大의 課題는 바로 이와같은 政治工作과 思想革命을 주도하고 社會主義社會內에 존재하는 「共產主義의 萌芽」를 擴大·發展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이와같은 관점에서 毛澤東과 左派는 政治工作과 上層構造의 改革의 重要性을 강조하지 않고, 社會主義社會의 物質的인 條件만을 강조한 「스탈린의 政治經濟學」을 批判하였다.

(3) 「스탈린의 政治經濟學」 批判

毛澤東은 「소련에 있어서 社會主義經濟의 問題」라는 스탈린의 팜프렛에 대하여 論評하면서, 스탈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上層構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毛澤東에 의하면 스탈린의 중대한 過誤는 事物에만 관심을 두고 人間에 대하여는 不信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科學技術과 經濟發展만을 강조한 스탈린의 經濟政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疑問을 제기하였다. 「이 책은 社會主義改造에 있어서

5) 人民日報社說, 「學好 無產階級 專政의 理論」, 人民日報(1975년 2월 9일)

6) 社會主義社會에서 資本主義의 復活 가능성에 대한 毛澤東과 左派의 견해에 대해서는 姚文元, 「論林彪反黨集團의 社會基礎」, 紅旗(1975년 3월 1일) pp.20~29; Joseph W. Esherick, "On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Mao and Marxist Theory", *Modern China* 5:1(Jan. 1979), pp.41~78.

機械의 역할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農民의 意識을 높이고 人間의 思想을 改造하지 않고서 어떻게 機械에만 依存할 수 있는가?」⁷⁾

毛澤東에 의하면 스탈린과 소련의 指導者들은 大衆의 社會主義에 대한 積極性을 高揚하려고 努力하지 않고, 科學技術과 生産力의 增進에만 집착한 나머지 勞動者들의 物質的 欲求를 이용하여 生産力을 제고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賃金의 積차를 조장하고 物質的인 보너스 制度를 도입하여 勞動階級間의 不平等을 深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產業構造의 不均衡發展, 都市와 農村의 差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스탈린은 社會主義社會에서 階級鬭爭과 矛盾이 계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大衆의 역할을 無視했기 때문에 소련을 마침내 修正主義國家이며 國家獨占資本主義國家로 變質하게 했다는 것이다.⁸⁾

이와같은 관점에서 毛澤東과 左派는 「政治經濟學」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學習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生産·分配·消費에 관한 모든 經濟問題를 個別的이고 獨立的인 問題로 理解해서는 안되며, 經濟問題를 政治·社會·文化 등의 모든 領域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問題로 把握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經濟問題를 綜合的이고 總體的인 脈絡에서 分析해야하며, 특히 政治와 經濟의 相關關係를 精確히 이해하는 「政治經濟學的」視角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毛澤東의 政治經濟學

毛澤東과 左派에 의하면 政治經濟學이란 모든 政治的·社會的·文化的 活動의 經濟的 意味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또한 經濟問題를 政治的·社會的·文化的 맥락에서 分析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⁹⁾

7) Mao Tse-tung, *Miscellany of Mao Tse-tung Thought*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1974), p. 262.

8) 스탈린과 소련의 經濟發展戰略에 대한 毛澤東의 批判에 관해서는 Richard Levy, "New Light on Mao", *China Quarterly* 61 (March 1975), pp. 95~117; John G. Gurley, "The Dialectics of Development: USSR vs. China", *Modern China* 4: 2 (April 1978), pp. 123~156을 참조.

9) 方海, "學一點 政治經濟學", 紅旗(1972년 7월), pp. 35~42; 李四光, "運用 毛主席的

즉 經濟는 좁은 意味에서 본다면 生産力의 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資源의 分配에 관한 行爲라고 定義할 수 있지만, 어떤 目的과 目標을 위해서 어떻게 資源을 配分하느냐는 問題는 社會構成員 全體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全體의 利益과 目的達成에 관한 判斷과 決定은 결국 政治의 問題이므로 政治와 經濟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分配·消費의 모든 經濟活動은 결국 政治問題이며,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이란 目標에 얼마만큼 寄與하느냐에 따라 評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毛澤東이나 左派가 생각하는 「社會主義社會」란 모든 不平等이 점차로 소멸되는 社會이어야 하기 때문에, 經濟政策에서도 富의 創造, 즉 生産力의 增加라는 문제보다는 共同富裕의 共產主義社會에로의 接近이란 차원에서 富의 分配문제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左派는 富의 不平等을 超來할 수 있는 個體經濟의 活動범위를 가능한 抑制하고 集體經濟의 역할을 擴大하려고 하는가 하면, 產業構造의 不均衡발전과 集體와 集體, 또는 個人과 個人間의 不平等을 점차로 감소시킬 수 있는 經濟政策을 강조한다.¹⁰⁾ 예를 들면 集體所有權의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큰 소위 「一大, 二公」의 人民公社의 우수성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按勞分配의 社會主義分配原則을 근본적으로 否定하지 않으면서도 所得의 不平等을 억제하고 大衆의 物質主義的 性向을 極少化할 수 있는 大案의 「標兵工分, 自報公議」라는 分配制度를 擴大 實施하려고 하였다.¹¹⁾

이와같은 左派의 政治優先主義와 平等主義的 傾向은 비단 分配政策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經濟政策分野와 社會·文化政策에서도 나

哲學思想 發展科學技術”, 紅旗(1970년 10월) pp. 43~48.

10) 郭大江, “走社會主義 共同富裕的道路”, 人民日報(1975년 8월 9일)

11) 大寨大隊의 分配制度에 대해서는 陳永貴, “突出 政治的 生動一課”, 人民日報(1966년 3월 22일); 賈承讓, “狼狐兩條 路線鬭爭改革 不合理的 管理制度”, 人民日報(1968년 11월 24일) 참조.

나왔다. 이를테면 知識青年의 上山下鄉政策, 幹部의 勞動參加, 그리고 農村의 赤脚醫生과 合作醫療制度和 같은 <新生事物>이 모두 左派의 政治優先主義와 平等主義의 政策定向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¹²⁾

左派에 의하면 이와같은 政治優先主義의이고 平等主義的인 政策은 비단 共同富裕의 社會主義社會에 대한 理想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 大衆으로 하여금 社會主義에 대한 積極性을 가지게 하고, 마침내는 大衆을 動員하여 비약적인 經濟發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¹³⁾ 다시말해서 社會主義社會에서 生産關係와 上層構造의 變革을 통해서 生産力을 「解放」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毛澤東과 左派에 의하면 歷史的으로 生産力의 發展이 生産關係의 變化를 가져온다는 正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이 타당하지만 社會主義改造가 完成된 社會에서는 오히려 生産關係와 上層構造를 革命的으로 變化시킴으로써 生産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文化革命이 經濟發展을 저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大衆의 思想을 革命化하여……社會生産力의 발전을 가져 온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¹⁴⁾

이와같이 政治優先主義, 平等主義, 그리고 主意主義(voluntarism)로 集約될 수 있는 毛澤東과 左派의 「政治經濟學」이 形成된 背景에는 「延安經驗」이라는 中共革命의 傳統과, 經濟的으로 落後한 中國社會에서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해야한다는 집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經濟發展至上主義에서 파생하는 不作用에 대한 警告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毛澤東과 左派의 發展戰略은 經濟發展의 혜택을 받지 못한 地域이나 階層으로부터, 그리고 地方黨幹部和 政治的 積極分子(political activists)

12) 文化革命의 理想을 反映했다는 「新生事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筆者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江青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革命樣板劇, 上山下鄉政策, 幹部의 勞動參加, 5.17 幹部學校, 赤脚醫生과 合作醫療制度를 포함시키고 있다. 紀平, 「要從本質上 觀察問題」, 紅旗(1973년 3월) pp. 7~10.

13) 安學光, 「我們應當相信群衆, 我們應當相信黨」, 紅旗(1972년 1월) pp. 11~18.

14) 人民日報社論, 「再論抓革命促生產」, 人民日報(1966년 11월 10일)

들로부터 어느정도 지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이 左派가 주장한 것처럼 「生産力을 解放」하여 급진적인 經濟發展을 초래하기는 커녕, 오히려 中國經濟의 混亂과 退步를 초래하게 되자 實用主義路線이 등장하게 되었다.

Ⅲ. 實用主義路線의 發展戰略

(1) 實用主義路線의 形成

文化革命 이후 격렬해진 路線鬭爭의 過程에서 左派와 實用主義派는 각각 路線鬭爭의 歷史를 中共政權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左派와 實用主義派의 路線鬭爭은 中共의 革命戰略에 대한 論爭과 유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20세기초에 中國의 近代化와 관련하여 中國 知識人 사이에 전개되었던 論爭과 相通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西歐의 先進技術을 받아들여 落後한 中國經濟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實用主義路線은 「民主主義先生」과 「科學先生」의 힘으로 新中國을 建設해야 한다는 新文化運動時代의 知識人들의 주장과 脈絡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¹⁵⁾

이와같은 左派와 實用主義路線의 歷史가 中國의 近代化와 革命過程에서 起源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路線鬭爭의 歷史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잘알려진 바와 같이 文化革命 이전에도 毛澤東의 左派的인 路線에 反對하는 勢力이 있었지만, 그와같은 反左派勢力이 組織的이고 同質的인 實用主義路線으로 계속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50年代에는 陳雲, 鄧子恢와 같은 經濟專門官僚들이 중심이 되어 毛澤東의 急進的인 合作化運動을 반대했지만, 그들의 反對는

15) 路線鬭爭과 近代化論爭에 대해서는 筆者의 “中共의 社會革命과 經濟發展”, 마당(1981년 9월) pp.116~119 참조.

결코 毛澤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挑戰도 아니었으며, 또한 中共의 基本政策에 대한 根本적인 修正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大躍進運動의 失敗로 말미암아 超來된 最惡의 經濟危機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實用主義路線이 形成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즉 劉少奇·鄧小平·陳雲과 같은 黨官僚와 經濟專門家들은 「人民의 衣食住문제를 해결」하고 經濟의 難局을 打開하기 위하여 黑猫이든 白猫이든 상관 없다는 實用主義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實用主義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經濟危機를 초래한 大躍進運動의 基本原理과 政策에 대하여 대폭적인 修正을 가하게 되었고, 中國經濟의 正常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新經濟政策」을 추진하였다. 즉 이들은 大躍進運動의 政治優先主義, 平等主義, 그리고 主意主義적인 傾向을 批判하고, 經濟와 政治의 分離, 그리고 「經濟法則」과 「客觀的條件」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經濟發展過程에서 科學技術과 專門家の 역할을 重視하였으며, 經濟的 效率과 受益性이 모든 經濟活動의 基準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大躍進運動당시에 추진되었던 平等主義적인 分配政策이나 非經濟적인 事業을 전면적으로 調整하였다.¹⁶⁾

물론 이와같은 調整作業은 처음부터 左派路線에 反對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긴박한 당시의 狀況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新經濟政策」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政策定向은 단순히 大躍進運動의 政策的 過誤를 교정한다는 次元을 넘어서 社會主義社會의 建設과 經濟發展에 대한 毛澤東이나 左派路線과는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1960년대초의 「두 路線의 숨은 對立」은 나침내 文化革命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兩極化되었다고 하겠다.¹⁷⁾

16) 大躍進運動의 失敗와 「新經濟政策」에 관하여는 筆者의 “中共의 農業政策”, 亞細亞研究 25:2(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82), pp.82~88 참조.

17) 1960년대초의 「두 路線의 숨은 對立」에 관해서는 金河龍, 中共文化革命研究(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5), pp.137~146 참조.

(2) 實用主義派의 「社會主義」觀

實用主義派와 左派는 모두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을 共同의 目標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社會主義觀은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左派는 社會主義社會의 「過渡性」을 강조하고 社會主義社會에서도 階級鬭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實用主義派는 社會主義社會의 「長期性」을 강조하고, 社會主義社會에서는 기본적으로 利害關係가 相衡되는 소위 敵對인 矛盾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實用主義派에 의하면 中國社會에서 社會主義革命은 1956년에 끝났다고 지적한다. 프롤레타리아專政이 확립되고 集團化와 國有化와 같은 社會主義改造가 완결된 1956년에 社會主義革命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대규모의 階級鬭爭을 더 이상 계속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즉, 私有財產制度가 근본적으로 제약되고 集體經濟가 絶大的인 優位를 확보한 中國社會에서 階級鬭爭이 계속되어야 할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實用主義派에 의하면 社會主義社會의 主要 矛盾은 階級間의 矛盾과 갈등이 아니라 經濟生活의 向上을 바라는 大衆들의 要求와, 그에 부응할 수 없는 中國의 經濟의 落後性에서 파생되는 矛盾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中國社會가 당면한 最大의 課題는 모든 階層이 協力·團結하여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와같은 實用主義派의 견해는 부분적으로 1956년의 第8次 全黨大會의 決議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곧 毛澤東과 左派에 의하여 否定되고, 1962년에는 社會主義社會에서도 階級鬭爭을 계속해야 한다는 毛澤東의 주장이 黨의 基本路線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毛澤東이 死亡한 이후, 특히 實用主義派의 政治的인 승리가 확인된 1978년의 3中全會에서 階級鬭爭의 終結이 公式的으로 再強調되었다.

즉 「中共黨 第11期 3中全會 公報」에 의하면 中國社會에서 대규모적인

階級鬭爭은 이미 종식되었고, 外敵의 侵略이 없는限 中共黨의 中心課題는 經濟發展과 4個 現代化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어떠한 政治運動이나 階級鬭爭도 이러한 中心課題와 유리되거나 또는 그것을 저해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經濟發展第一主義를 분명히 하였다.¹⁸⁾

(3) 4個 現代化의 政治經濟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實用主義派는 1978년의 3中全會를 계기로 4個 現代化와 經濟發展을 黨과 國家가 추구해야 할 最高·最大의 目標라고 선언하고,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 思想解放, 體制改革, 門戶開放政策을 추진하였다.¹⁹⁾

우선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實用主義派는 文化革命 시기에 숙청당했던 대부분의 黨幹部들을 復權시키고, 左流에 의해서 비판되었던 實用主義的인 政策을 復活했을 뿐만아니라 經濟發展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改革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實用主義派는 毛澤東과 左派의 政治優先主義와 平等主義, 그리고 敎條主義로부터 人民의 思想이 解放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個 現代化와 經濟發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生産力과 生産關係, 政治와 經濟의 相互關係에 대한 毛澤東의 「政治經濟學」을 批判하고 經濟發展第一主義의 觀點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實用主義派는 生産關係의 變化가 生産力의 變化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毛澤東의 主張을 反마르크스主義라고 비난하면서 「生産關係를 決定하는 것은 언제나 生産力」이라고 주장하였다. 實用主義派에 의하면 모

18) “中國共產黨 第11屆 中央委員會 第3次 全體會議 公報”, 人民日報(1978년 12월 24일); 人民日報社論, “把全黨工作的 着重點轉移到 現代化 建設上來”, 人民日報(1978년 12월 25일)

19) 實用主義體制的 形成과 그 政策定向에 關해서는 筆者의 “4個 現代化와 中共의 農村政策”, 亞細亞研究 26: 2(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83), pp. 89~106 참조.

든 社會關係와 上層構造는 生産力의 變化에 따라서 變化하기 때문에 生産力의 增加만이 中國社會의 進步的인 發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治工作을 비롯하여 모든 制度와 政策은 生産力의 增加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評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實用主義派는 社會主義體制를 否定하지 않는 限 生産力의 增加를 가져올 수 있는 制度와 政策을 強化·擴大하는 한편, 아무리 社會主義의 理想에 의해서 正當化될 수 있더라도 生産力의 감퇴를 초래할 수 있는 制度와 政策은 改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實用主義派는 經濟管理體制를 分權化하고, 부분적으로 市場의 機能을 認定하는 동시에 商品經濟의 역할을 허용하였다. 소위 趙紫陽의 四川經驗을 기초로 하여 企業의 自主權을 擴大하는가 하면, 農村地域에서는 人民公社制度를 철폐하고 生産責任制를 導入함으로써 個體經濟의 活動영역을 확대하고 個人과 企業의 利潤追求를 허용·장려하였다.²⁰⁾ 사실 實用主義派는 左派의 平等主義的 分配政策을 비판하고 어느정도 所得의 不平等을 認定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또한 實用主義派는 經濟發展과 4個 現代化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科學과 技術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認識에서 教育政策을 改革하여 專門인 知識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先進國家의 발달된 技術文明을 導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鄧小平에 의하면 經濟적으로 落後된 中國이 先進產業國家를 뒤쫓아 가려면 가장 발달된 科學·技術을 이용해야 함으로, 中國은 先進國家로부터 學習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西方世界에 대한 적극적인 門戶開放政策을 추진하였다. 다시말해서 實用主義體制下에서 중공은 左派의 自力更生路線에서 門戶開放路線으로 전환했던 것이다.²²⁾

20) 人民公社의 解體에 대해서는 筆者의 “무너지는 中共의 人民公社”, 新東亞(1983년 3월), pp.394~402 참조.

21) “一部分農民 先富起來 應受鼓勵”, 人民日報(1979년 2월 19일)

22) 郭泰運, “中共의 對外經濟開放戰略”, 中·蘇研究 13(1982), pp.155~185.

(4) 두 개의 路線, 두 개의 發展戰略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實用主義路線의 經濟發展第一主義는 左派의 政治優先主義와 모든 政策分野에서 날카로운 對立·對照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은 社會主義社會와 階級에 대하여 相反되는 認識에서 출발하여 中國社會의 近代화와 經濟發展에 대하여도 相異한 戰略을 제시하였다.

즉, 左派는 人間의 意志와 大衆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自力更生의 精神에 입각하여 勞動集約的인 方法을 통하여 經濟의 비약적인 發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社會主義에 대한 大衆의 積極性을 高揚하기 위한 政策과 制度를 強化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즉 集體經濟를 강화하고 共同富裕의 意識을 고취하는 동시에 分配政策이나 社會保障政策 등을 통하여 平等한 生活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左派의 發展戰略은 모든 地域과 階層이 均等하게 發展해야 한다는 認識에서 출발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實用主義派는 左派의 自力更生論이나 均等發展戰略은 理想主義의이고 唯心論的인 思想의 所産이라고 비난하면서 經濟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地域과 階層이 主導하여 經濟發展을 우선 이룩하고 점차로 그 效果를 擴散시켜야 한다는 立場을 취하였다. 따라서 實用主義路線에서는 어느 정도의 不平等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허용하는 동시에,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階層과 地域의 발전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Gurley 와 같은 學者는 實用主義路線은 중국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階層에 依存하여 發展하려는 戰略(building on the best)인 반면에, 左派路線은 中國社會에서 가장 落後한 地域과 階層을 動員하여 發展하려는 戰略(building on the worst)이라고 지적하였다.²³⁾

23) John G. Gurley, "Capitalist and Maoist Economic Development", in Fridman

Ⅳ. 社會科學的 觀點에서 본 中國의 路線鬭爭

(1) 「두 개의 마르크시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中共의 指導層내에는 社會主義와 階級鬭爭, 그리고 發展戰略에 대하여 相異한 見解를 가진 두 개의 路線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상대방을 非마르크스主義者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實用主義派는 左派의 平等主義와 人間의 意志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主意主義는 「科學的 마르크시즘」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에 左派는 實用主義派의 唯生産力論이나 階級鬭爭終末論이야말로 마르크스主義의 辨證法的 唯物論을 機械的·形式的으로 해석한 결과로 나온 理論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左派에 의하면 實用主義路線은 政治와 經濟, 革命과 生産의 辨證法的 關係를 看過하고 있으며, 生産力의 發展은 自動的으로 社會主義社會에서 共產主義社會로 移轉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經濟決定主義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階級鬭爭을 否定하고 安定과 團結만을 강조한 나머지 社會主義社會의 變質을 가져 온 修正主義路線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實用主義派는 政治的·思想的 態度에 따라서 階級을 규정하려는 毛澤東과 左派의 견해는 마르크스의 階級論을 歪曲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⁵⁾ 實用主義派에 의하면 階級이란 社會의 經濟構造에서 占有하는 個人的 位置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므로 中國社會의 經濟構造가

and Selden, (ed.) *America's Asia*, pp.327~337.

24) 이와같은 論爭에 관해서는 Lowell Dittmer, *Liu Shao-ch'i and Chinese Cultural Revolution* (Univ. of Calif. Press, 1974), pp.173~293 참조.

25) 中共에서 階級の 多樣한 解析에 관해서는 Richard C. Kraus, *The Evolving Concept of Class in Post-Liberation Chin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 1974) 참조.

변모된 1956年以後의 階級과 階級關係를 社會主義改造가 있기 이전의 階級關係와 同一視하는 것은 非마르크적인 견해라는 것이다.²⁶⁾ 實用主義派에 의하면 社會主義改造가 완결된 中國社會에서 階級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社會主義社會에서 階級關係는 敵對인 鬭爭의 關係가 아니기 때문에 階級鬭爭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社會主義社會에서는 經濟發展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共產主義社會로 移轉할 수 있는 「物質的 基礎」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와같은 「物質的 基礎」가 마련되기 이전에 共產主義社會로 移轉하려는 左派의 「窮過渡」는 유토피아적 歷史觀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와같이 左派와 實用主義派는 서로가 자신들만이 진정한 마르크스主義를 대변하고 있으며 相對方의 路線과 政策은 非마르크스主義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論爭은 中共 指導層 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中共의 路線鬭爭에 관심이 있는 西方世界의 學者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論爭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Meisner 와 같은 學者는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과정에서 나타난 左派와 毛澤東의 유토피아리즘은 「正統인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正統인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의하면 高度로 발달한 生産力이 미래의 共產主義社會 建設을 위한 前提條件」이며, 이와같은 經濟發展을 바탕으로 비로서 肉體勞動과 精神勞動, 都市와 農村의 不平等을 철폐한다는 마르크스主義의 궁극적인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毛澤東은 生産力의 발전이 없이도 階層間, 機能間의 不平等을 억제하여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²⁷⁾

또한 Schwartz 와 Schram 같은 學者들도 人間意志와 革命精神의 역할을 강조하는 毛澤東과 左派의 주장은 歷史發展에 있어서 生産力의 變化

26) 陳中立, “我國的 剝削階級是 什麼時候消滅的”, 人民日報(1980년 1월 10일)

27) Maurice Meisner, “Maoist Utopianism and the Future of Chinese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26 : 3(Summer 1971), pp.535~555.

와 社會經濟構造의 變化를 重視하는 正統적인 마르크스主義, 즉 「科學의 마르크스主義」와 矛盾된다고 지적하였다. 마르크스와 레닌도 歷史發展에서 人間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技術과 經濟의 發展과 같은 客觀적인 條件을 더욱 중시했다고 주장하면서 毛澤東의 主意主義는 마르크스主義에서 逸脫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²⁸⁾

그러나 Pfeffer 와 같은 學者들은 毛澤東과 左派의 主意主義와 유트피안이즘은 마르크스主義의 傳統에서 일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解放을 目標로하는 마르크스主義의 基本精神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옹호하였다. Pfeffer 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일부 學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機械的 唯物論者(mechanical materialist)도 아니며, 더구나 經濟決定論者(economic determinist)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歷史發展에서 人間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意識화된 人間의 行動이 物質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毛澤東과 左派路線은 「마르크스와 레닌主義의 傳統안에서 마르크스가 提起한 共產主義社會의 目標를 中國이라는 社會에서 실현하려 했던 革命的인 發展戰略」이라는 것이다.²⁹⁾

다시말해서 毛澤東과 左派路線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革命精神을 계승했을 뿐만아니라 中國과 같은 非西歐社會에서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는데 적합한 理論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社會主義社會에서도 階級鬭爭이 계속된다는 毛澤東의 주장은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하여 具體化되지 못한 부분을 補完·發展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³⁰⁾

이와같이 毛澤東과 左派路線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革命精神을 계승한 반면에 實用主義路線은 마르크스주의의 修正主義傳統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Dittmer 와 같은 學者에 의하면 劉少奇·鄧小平의 實用主義路

28) Benjamin Schwartz, *Communism and China: Ideology in Flux* (Harvard Univ. Press, 1968); Stuart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Praeger, 1969) 참조.

29) Richard H. Pfeffer, "Mao and Marx in the Marxist-Leninist Tradition", *Modern China* 2: 4 (Oct. 1976), pp. 421~460.

30) Joseph W. Esherick, "On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Mao and Marxist Theory", *Modern China* 5: 1 (Jan. 1979), pp. 41~78.

線은 Bernstein, Kausky, Bukharin, Khrushchev 등으로 이어지는 修正主義傳統과 같은 脈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經濟發展과 4個現代化를 至上의 目標로 設定하고 階級鬭爭과 革命的 終息을 선언한 實用主義路線은 마르크시즘과 社會主義에 대한 經濟主義의 解釋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³¹⁾

毛澤東과 左派路線이 진정한 마르크시즘의 繼承이나, 또는 實用主義路線이 정당한 마르크스主義의 傳統을 繼承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결국 마르크스主義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學者들의 해석이 多樣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西歐學者들 사이에서는 소위 「初期의 마르크스」와 「後期の 마르크스」에 대한 論爭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Hegel 哲學과 西歐의 휴머니즘의 傳統을 反映한 마르크시즘(the Humanist Marx)과 英國의 政治經濟學의 傳統을 계승한 마르크시즘(the Scientific Marx)에 대한 論爭이 계속되고 있어서 무엇이 마르크시즘의 핵심이냐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生産力과 生産關係, 歷史發展에 있어서 經濟의 下部構造와 上部構造의 關係, 그리고 技術의 역할에 대한 論爭은 科學技術의 沒價値性和 階級性에 관한 中共의 路線鬭爭의 爭點과 類似하다고 하겠다.³²⁾

이와같이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多樣한 解釋과 論爭에 대하여 Gouddner는 마르크시즘 자체에 「두 개의 마르크시즘」(the two Marxisms)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解決」하려고 하였다. 즉 마르크시즘 속에는 「科學的 마르크시즘」(scientific Marxism)과 「批判한 마르크시즘」(critical

31) Lowell Dittmer, "Chinese Communist Revision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3: 1(Spring 1980), pp.3~40; Arif Dirilik, "Socialism Without Revolution: The Case of Contemporary China", *Pacific Affairs* 54: 4(Winter 1981/82), pp.632~661.

32) 歷史發展에 있어서 生産力, 특히 技術革命的 역할에 대한 論爭은 William H. Shaw, *Marx's Theory of History*(Stanford Univ. Press, 1978) Gerald A. Cohen, *Karl Marx's Theory of History: A Defense*(Princeton Univ. Press, 1978)을 참조.

Marxism)이 共存·對立關係에 있다는 것이다.³³⁾

Gouldner에 의하면 科學의 마르크시즘은 西歐의 技術과 科學에 바탕을 둔 近代의 文明의 傳統에서 출발한 것으로, 生産力의 發達에 대하여 樂觀的 態度를 反映하고 있으며 人間을 構造的 被造物로 보는 下部構造 決定論的인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科學의 마르크시즘은 自然히 生産力의 發展을 강조하며, 革命의 궁극적인 目的도 生産力의 發展에 의한 「必要로부터 解放」과 近代化에 있다는 견해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批判的 마르크시즘은 西歐의 人文主義의 傳統을 계승하여 人間을 社會構造的 創造者로 보는 主意主義의 傾向이 강하며, 社會變化를 非連續的·革命的 非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革命과 歷史의 目的에 대해서도 先驗的 價値의 尊重, 道德性의 復活과 같은 人間解放과 人間性의 回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두 개의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 자신 속에 이미 共存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잠재적인 矛盾은 마르크시즘의 傳承過程에서 表面化되었다는 것이다. 즉, 科學的 마르크시즘의 오류가 발견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露出되자 批判的 마르크시즘이 臺頭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經濟的으로 落後한 러시아나 中國과 같은 社會에서 社會主義革命은 批判的 마르크시즘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批判的 마르크시즘이 看過한 부분, 즉 經濟發展의 必要가 대두하면 다시금 科學的 마르크시즘에 의거하여 生産力의 發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본다면 中國의 路線鬭爭도 바로 마르크스 자신 속에서 存在했던 두 가지 相反되는 性向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으며, 中國의 社會的·經濟的 現實에 대한 認識의 變化에 따라서 때로는 批判的 마르크시즘과 유사한 左派路線이, 때로는 科學的 마르크시즘을 표방하는 實用主義路線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해 왔다고 하겠다.

33) A. Gouldner, *The Two Marxisms*(The Seaburg Press, 1980), pp.108~150.

(2) 擴散理論과 從屬理論

2次大戰이후 西歐學者들은 開發途上國家의 近代化와 經濟發展에 關하여 다양한 理論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擴散理論家들을 傳統社會와 近代社會의 兩分法을 이용하여 近代化를 설명하면서 西歐學界의 主流로 등장하였다.

이와같은 散散理論家들에 의하면 近代化는 점차로 傳統的인 價値와 制度 등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近代的인 價値와 制度의 역할이 擴大되는 過程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近代的인 産業國家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資本과 科學技術을 도입하고 「非合理的」인 傳統社會의 價値와 行爲規範을 近代的인 價値와 行爲規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近代化는 모든 社會와 모든 階層이 同時的으로 추진될 수는 없으며, 주로 西歐의 영향을 받은 階層과 地域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擴散된다는 것이다. 즉 近代化와 經濟發展은 처음에는 西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점차로 非西歐社會에까지 擴散되어 世界的인 현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³⁴⁾

擴散理論家들에 의하면 이와같이 近代化가 世界的으로 擴散되는 過程에서 西歐의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와 같은 否定的인 현상도 나타났지만, 점차로 相互依存性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西歐社會와 非西歐社會는 共同의 發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自由主義의 國際經濟學者들은 國際的 分業과 相互依存關係에 입각한 自由貿易을 통하여 共同의 發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開發途上國家는 先進國家로부터 발달된 科學技術과 資本을 도입하여 經濟發展을 加速化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擴散理論家의 觀點에서 본다면 中國의 左派路線은 近代化的

34) 近代化에 대한 西歐學者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Samuel P. Huntington, "The Change to Change", *Comparative Politics* 3(April 1971), pp. 283~322 참조.

必然性(the inevitability of modernization)에 대한 一時的 抵抗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合理的인 價値와 태도를 부정하고 人間의 意志와 革命精神을 강조하는 左派路線은 擴散理論家들이 생각하는 「近代化症候群」(modernization syndromes)과 배치되는 非合理的인 것이고, 따라서 一時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³⁵⁾ 더구나 分業과 互惠的인 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國際協力, 또는 상이한 階層과 地域間的 協力에서 얻을 수 있는 利得을 고려하지 않고 自給自足的인 自力更生政策만을 강조하는 左派路線은 非效率的인 經濟政策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擴散理論은 左派路線보다는 實用主義路線에서 그 類似性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實用主義路線은 擴散理論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近代化와 經濟發展의 理論을 전개하고 있으며, 合理的 價値와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實用主義派의 門戶開放政策은 國際協力과 相互依存性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擴散理論과 같은 脈絡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實用主義派의 門戶開放政策을 「洋奴哲學」의 反映이라고 비난하고 中國의 對外依存度를 極小化해야 한다고 주장한 左派路線은 擴散理論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從屬理論과 類似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³⁶⁾ 물론 多樣한 分析視覺을 지니고 있는 從屬理論과 左派路線을 比較한다는 것은 양 쪽을 모두 單純化할 위험성이 있지만, 左派路線과 一部 從屬理論의 이데오르기적인 同類性을 看過할 수는 없다.

첫째로, 從屬理論가와 中國의 左派理論家들은 個人이나 集團보다는 政治經濟學的인 單位인 階級이나 社會構成體를 基本分析單位로 設定하고, 이들 사이의 支配와 從屬의 關係를 構造的·歷史的·總體的 脈絡에

35)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 Press, 1970), pp. 50~110.

36) 擴散理論과 從屬理論의 分析視覺을 비교한 것으로는 J. Samuel Valenzuela and Arturo Valenzuela, "Modernization and Dependency", in *Comparative Politics* 10: 4 (July 1978), pp. 535~557 참조.

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로, 從屬理論家와 左派理論家들은 階級이나 社會構成體間的 關係가 兩極化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며, 이들 사이의 關係를 敵對的·對立的 關係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階級調和說이나 國際協力論은 既存하는 支配나 從屬의 關係를 永久化하려는 이데오르기라고 배격한다. 이들은 被支配階級이나, 또는 周邊國의 低發展은 支配階級이나 中心國과의 關係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支配階級이나 中心國과의 從屬의 關係를 斷絶하는 社會構造의 總體의인 變革이 없는 周邊國이나 被支配階級の 發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세째로, 일부 從屬理論家들은 價値指向的인 發展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毛澤東이나 左派의 平等主義의 유토피안이즘과 類似하다. 이를테면 Seers에 의하면 既存의 發展理論은 經濟의 量的인 成長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貧困과 失業, 不平等의 감소와 같은 發展의 質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또한 Goulet와 같은 學者들도 大衆의 기본적인 生活이 보장되고 人間의 尊嚴性을 享有할 수 있으며, 抑壓으로부터 解放되어야 한다는 觀點에서 發展의 意味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³⁸⁾ 이와같이 發展의 目的性과 價値性을 강조하는 從屬理論家들의 見解는 技術指向的인 現代文明에 대한 不信과 계절라時代의 平等主義的 理想을 강조하는 毛澤東과 左派路線과 脈絡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V. 路線鬭爭과 循環理論

Skinner와 Winckler는 1949년부터 1968년까지中共의 農村經濟政策

37) Dudley Seers,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9: 2(1977), pp.2-7.

38) Denis A. Goulet, "Development for Wha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July 1968), pp.299-301.

을 分析하여 左派와 實用主義派의 路線鬭爭과 政策變化에 대한 「循環 모델」(cyclical model)을 제시한 바가 있다.³⁹⁾

이들의 循環理論에 의하면 中共의 指導層內에는 이데올로기적인 目標을 추구하는 左派와 經濟적인 目標을 추구하는 實用主義派가 있으며, 이들의 政策定向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社會主義에 대한 大衆의 積極성과 人間의 意志를 강조하는 左派의 견해가 黨內에서 우세하게 되면, 자연히 客觀적인 條件과 經濟的 現實을 무시하는 政策定向이 대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左派의 政策은 中共政權이 추구하는 또다른 目標인 經濟發展과 秩序維持를 희생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大衆의 不滿이 累積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黨內에서 實用主義派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經濟的 目標과 大衆의 物質的 欲求를 존중하는 政策定向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Skinner와 Winckler의 「循環理論」은 中共 指導層間의 路線鬭爭과 政策變化, 그리고 權力鬭爭을 간명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循環理論」에 대한 異論과 批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Nathan과 같은 學者는 中共 指導層이 社會主義社會의 建設과 經濟發展에 관하여 兩極化되어 있다는 路線鬭爭의 理論을 否定한다.⁴⁰⁾ Nathan에 의하면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目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는 農村의 集團化和 社會主義 分配原則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어서 左派와 實用主義派는 基本的으로 같은 立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左派와 實用主義派의 路線鬭爭은 同一한 目標을 추구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方法과 手段에 관한 사소한 見解差異에 불과하며, 그것이 權力鬭爭에 의하여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Nathan에 의하면 中共의 政策變化는 指導層間의 이데올로

39) G.W. Skinner and Edwin A. Winckler, "Compliance Succession in Rural China", Amitai Etzioni(ed.), *Complex Organization* (New York, 1968), pp. 410~438.

40) Andrew J. Nathan, "Policy Oscillations in the PRC", *The China Quarterly* 68 (Dec. 1976), pp. 720~733.

거적인 差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變化하는 中國의 政策環境에 적응하려는 實驗的이고 發展的인 政策定向(Experimentation-cum-Secular Development Model)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Nathan과 Skinner 등은 中共政治에 대하여 전혀 相反되는 理論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理論이 中共의 政治過程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筆者가 다른 論文에서 자세히 分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Nathan과 Skinner의 理論이 가진 주요 문제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⁴¹⁾

즉, Skinner와 Nathan은 모두 1949년 이후의 中共政治를 單一모델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Nathan의 경우는 大躍進運動과 文化革命과 같은 歷史的인 事件이 中共의 政治過程의 性格을 기본적으로 변질시켰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Skinner의 경우에는 文化革命시기에 나타난 路線鬭爭을 지나치게 擴大·解祈하여 文化革命이전의 政治過程에서 발견될 수 있는 政策論爭까지도 路線鬭爭으로 간주함으로써 中共指導層내에 유지되고 있었던 同質性和 共同意識의 作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1950년대에는 Nathan이 지적한 것처럼 社會主義社會의 建設과 經濟發展이라는 目標에 대하여 指導層間에 대체적인 合意가 形成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同一한 革命經驗을 가진 비슷한 世代의 指導者들의 同質性이 이와같은 合意에 의한 政策決定을 용이하게 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中共指導層內的 同質性이나 合意形成過程은 大躍進運動의 失敗와 文化革命으로 破壞되거나 變質되었다. 특히 文化革命過程에서 등장한 江靑을 중심으로하는 4人組는 과거의 中共指導層과는 전혀 다른 經驗을 가진 集團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出現으로 指導層의 同質性은 사실상 崩壞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41) Skinner와 Nathan의 理論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筆者의 學位論文, *The Tachai Campaign and China's Rural Policy*(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 of Washington, 1980), Chapter one 을 참조할 것.

더군다나 大躍進運動의 失敗로 毛澤東의 權威와 指導力에 대한 懷疑가 제기되고, 또한 社會主義社會의 建設과 經濟發展을 同時에 추진할 수 있는 융통성이 喪失됨에 따라서 政策論爭은 점차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復合的 要因으로 말미암아 1950년대의 「實驗的이고 發展的인 政策決定過程」의 특징은 살아지고 1960년대 이후에는 權力鬭爭과 政策論爭이 路線鬭爭으로 發展되었을 뿐만아니라 全國的으로 擴散되었다. 즉 路線鬭爭은 指導層內에서 激化되었을 뿐만아니라 그것은 中國社會의 여러 階層의 相反되는 이해관계와 연결됨으로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²⁾

따라서 文化革命 이후에는 Skinner와 Winckler가 지적한 두 개의 相互 對立되는 路線과 勢力이 形成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中共의 政治過程에서 두 路線이 번갈아 등장하는 명백한 순환패턴(cyclical pattern)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政策變化의 패턴은 指導層間의 路線鬭爭이 격렬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路線의 循環패턴은 不透明해졌던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左派와 實用主義派의 政治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Lewis가 지적한 것처럼, 中國社會의 多樣성과 複雜性으로 어느 한 政策定向을 일방적으로 強要할 수 없었고,⁴³⁾ 셋째로, 左派와 實用主義派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적인 差異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社會가 지닌 現實的 制約으로 말미암아 政策選擇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政策分野에 있어서는 妥協과 共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테면 「一大, 二公」의 人民公社制度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左派의 이데올로기적인 性向에도 불구하고, 左派指導者들은

42) Lowell Dittmer, "Line Struggle in Theory and Practice", *China Quarterly* 72 (Dec. 1977), pp. 675~712.

43) John Lewis, "The Study of Chinese Political Culture", *World Politics* 18 : 3 (April 1966), pp. 503~524.

中國社會의 經濟的인 現實與件에 비추어 볼 때 3級所有制와 按勞分配의 社會主義分配政策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⁴⁴⁾

따라서 文化革命이후에 政策變化의 패턴은 指導層間的 權力鬭爭과 路線鬭爭이 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路線과 勢力의 政策이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性向의 政策定向이 共存하거나 妥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左派나 實用主義派의 路線과 政策이 번갈아 가면서 支配했다기 보다는 共存과 妥協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1975년에서 1978년까지는 華國鋒, 葉劍英 등이 중심이 된 中導勢力이 등장하여 左派와 實用主義派의 미묘한 勢力均衡을 유지하려는 傾向이 지배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妥協과 共存의 政治는 毛澤東의 死亡, 文化革命 4人組의 沒落, 그리고 實用主義派의 復權이 이루어지면서 崩壞되기 시작하였고, 1978년의 3中全會이후에는 左派와 實用主義派의 勢力均衡이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實用主義派의 政治의 勝利로 말미암아 中共의 政治過程에서 路線鬭爭이 종결되고 1950년대와 같은 合意에 의한 政策決定過程이 復活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1982년 9월에 개최된 中共黨 12全大會와 1983년 6월에 개최된 第6期 全人代에서 實用主義派는 黨과 國家의 主要 政策決定機構로부터 左派의 인 勢力을 배제하고 鄧小平·胡耀邦·趙紫陽體制를 확립함으로써 指導層內的 同質性을 회복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政治的인 勝利를 바탕으로 實用主義派는 전통적인 實用主義的 政策을 全面的으로 復活하고 左派의인 政策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農村經濟政策分野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左派路線

44) 張春橋는 「生產隊에서 生產大隊과 人民公社로 (所有權이) 移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實現되려면 장구한 時日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張春橋, “論對資產階級的 全面專政”, 紅旗(1975년 4월) pp. 3~12.

45) 華國鋒의 中導勢力의 등장과 中導의 政策方向에 대해서는 筆者의 “中共의 農業政策” 亞細亞研究 25 : 2(1982), pp. 113~131 참조.

의 상징인 人民公社를 解體하고, 과거에 左派로부터 修正主義의 政策이라고 맹렬한 批判을 받았던 農業生產責任制를 擴大·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政策分野에서 實用主義派는 權力鬭爭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初期의 선명한 改革路線에서 後退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즉, 1978년의 3中全會에서 實用主義派는 思想解放, 體制改革, 門戶開放政策을 표방하였지만, 그와같은 3中全路線과 政策은 곧 광범위한 階層으로부터 反對과 混亂을 유발하게되자 後退·調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2년의 12全大會와 1983년의 6期 全人代의 政策定向은 1978년의 3中全 路線과는 달리, 妥協과 調整을 모색하는 새로운 中共指導層의 努力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⁴⁾

그러면 이와같이 左派의 政治的 沒落에도 불구하고 左派路線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970년대에 劉少奇나 鄧小平의 政治的 失脚에도 불구하고 實用主義路線과 政策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과 같은 脈絡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左派나 實用主義路線과 政策은 毛澤東이나 鄧小平과 같은 소수의 指導層의 見解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中國社會의 여러 階層과 地域의 이해관계와 複合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左派路線이나 實用主義路線을 대변하던 政治指導者가 살아진 후에도 長期間 그 영향력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물론 毛澤東과 같은 강력한 代辯者를 상실한 左派勢力은 主要 政策決定過程에서 그들의 路線과 政策을 表出·集約하지는 못하겠지만 現代化過程에서 實用主義路線과 政策을 견제하는 일종의 反體制勢力으로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4) 實用主義派의 3中全路線에 대한 반발로 말미암아 3中全路線과 政策의 後退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筆者의 “現代化戰略은 成功하고 있는가?” 新東亞(1973년 7월), pp.184~192 참조

VI. 結 論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毛澤東 이후에 實用主義派가 得勢하면서 毛澤東의 「政治經濟學」과 左派路線은 격렬한 批判의 대상이 되었다. 階級鬭爭과 革命精神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유토피아적인 平等主義를 표방함으로써 毛澤東과 左派는 中國의 經濟發展과 現代化課業에 莫大한 損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1958년의 大躍進運動이나 1966년의 文化革命은 左派路線의 誤謬였으며, 이와같은 左派路線으로 말미암아 大衆은 심각한 精神的·物質的 苦痛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左派路線이 支配하던 시기는 中共歷史에 있어서 「大災難」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實用主義派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毛澤東死後, 특히 1978년 3中全会 이후 左派의 政治·革命우선주의와 날카롭게 대립되는 經濟發展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左派에 의하여 비난되었던 「修正主義的 政策」을 모두 復活·強化하였다.

즉 平等主義的인 分配政策을 폐지하고 能力에 의한 差等分配를 실시하였고, 所得의 不平等을 용인할 뿐만아니라, 그것을 利用하여 生産意慾을 자극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實用主義體制에서는 經濟發展과 現代化에 기여할 수 있는 階層과 地域에게 어느 정도의 特權을 부여했으며, 先進國家로부터 資本과 科學技術을 導入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開放的인 政策을 추진하였다.

이와같이 大衆의 革命意志보다는 科學技術을, 平等主義的 理想보다는 現實的이고 物質的인 生活改善을, 그리고 階級鬭爭보다는 調和와 協力を 강조하는 實用主義路線은 「科學的 마르크시즘」이나, 또는 西歐의 擴散理論의 視覺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반대로 左派路線은 「批判的 마르크시즘」이나 從屬理論의 精神과 相通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左派路線과 實用主義路線이 번갈아 가면서 支配했던 中共의

路線鬭爭의 經驗이 第3世界의 發展戰略에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實用主義派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左派路線이 經濟發展의 退步와 「大災難」을 초래했다면 무엇때문에 左派의 영향력이 이처럼 강성했으며, 毛澤東과 4人組가 없는 데도 左派路線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疑問에 대한 解答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左派路線과 實用主義路線의 長·短點을 比較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實用主義路線은 短期的 次元에서 본다면, 生産力의 增加와 經濟發展의 문제에 있어서 左派路線보다 效果的인 것 같다. 사실 實用主義派가 주장한 것처럼 左派가 주도한 大躍進運動이나 文化革命은 經濟成長이란 측면에서는 失敗했다. 따라서 中共의 政治史에서 左派가 支配의이었던 時期에는 經濟的 침체와 퇴보가 있었고, 實用主義路線과 政策이 우세했던 時期에는 經濟發展이 있었다는 實用主義派의 주장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左派路線은 生産力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했지만 配分的 不平等을 억제·감소하는 동시에 發展의 惠澤을 여러 階層과 地域에 擴散·共有하려는 政策을 產出하였다. 이를테면 都市의 知識人과 官僚의 下放運動이라든가, 農村合作醫療制度, 혹은 地方工業의 發展政策 등으로 近代化와 高度成長政策을 추구하는 第3世界에서 흔히 발견되는 병폐, 즉 人口와 文化·福祉시설의 都市集中化와 貧富의 격차현상을 中國에서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左派政策의 效果는 經濟力의 絶大的인 不足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때가 많았다. 따라서 實用主義派는 「先生產, 後分配」의 政策定向이 보다 현실적인 接近方法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셋째로, 鄧小平의 「黑猫, 白猫論」에서 나타난 것처럼 實用主義派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덜 강조하고 個人의 利益의 多樣性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채로운 生活樣式과 文化活動이 허용되지만, 敵과 同志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思想의 統一을 강조하는 左派路線은 生活樣式과 文

化活動의 劃一化·單純化를 가져 왔다. 그러나 思想教育和 配分的正義를 강조하는 左派路線이 지배하던 時期에는 社會主義體制的 正統性문제 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는데 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實用主義政權下에서는 社會主義에 대한 「信心의 危機」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아이로니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 볼 바와같이 左派路線과 實用主義路線은 近代化過程에 대한 認識이 다르고 강조하는 政策定向도 다를 뿐만아니라 相異한 階層의 利益을 代辦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左派路線이나 實用主義路線의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中國社會의 分裂과 危機를 초래했다는 歷史的 敎訓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左派路線이 支配의일 때에는 「經濟的 危機」가 문제가 되었고 實用主義路線이 支配의일 때에는 社會主義에 대한 理想이 退潮하면서 「信心의 危機」와 「不平等의 危機」가 제기되었다. 이와같이 성격이 서로 다른 「危機」를 경험하는 동안에 中共의 指導者들은 두 路線의 補完의인 關係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두 路線의 共存과 妥協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즉 毛澤東과 左派는 階級鬭爭을 강조하면서도 生産의 增加와 科學技術의 발전을 동시에 주장하였으며, 實用主義派도 「社會主義 物質文明의 建設」과 「社會主義 精神文明의 建設」을 동시에 강조한 것도 이와같은 역사적 敎訓의 결과로 할 수 있다.

左派路線과 實用主義路線이 서로 相反되면서도 補完的이라는 敎訓은 第3世界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즉, 지나친 經濟發展제일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正統性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近代化의 惠澤에서 소외된 階層의 반발을 유발하여 左派의인 性向의 저항운동을 대두하게 하며, 또한 지나친 左派의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 經濟成長의 침체를 가져 오고 中產層과 專門技術官僚層의 반발을 유발하여 소유 開發獨裁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近代化過程에 있는 第3世界의 경우에도 두 路線의 均衡과 綜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